metro
메트로 2013년 3월 5일 화요일

Entertainment p/13

바느질 심매경 확진 김태희

Career p/11

알아야 취업사기 안당한다

유치원비 함부로 못올린다

NEWS p/02

김종훈 테마주 300억 증발

ECONOMY p/08

Entertainment p/13

인방극장 접수 나선 아이유

metro
메트로 2013년 3월 5일 화요일 제2,362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한국 야구 기사회생

희망 잃지말고 이 봄을 준비하라 새옷 갈아 입은 '광화문글판' 4일 새봄을 맞아 새 옷으로 갈아입은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광화문글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글은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에서 가져온 것으로 힘들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뉴시스

애널리스트 뺨치는 여친 지갑!

홈쇼핑 즐기는 모습 보고 주식종목 변경 짭짤
생활밀착형 투자 패턴 예상보다 수익률 높아

#30대 중반의 회사원 최모씨는 지난해 여자친구의 달라진 소비 행태를 보고 주식투자 종목을 갈아탔다가 큰 수익을 올렸다. 평소 백화점만 찾던 여자친구가 서서히 온라인·홈쇼핑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 최씨는 "회사에서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여자친구마저 '간장녀'로 변신하니 정신이 번쩍 났다"며 "보유 중이던 백화점·대형마트 종목을 팔고 홈쇼핑 종목을 매수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전략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지난해 여름 주당 13만원에 사들인 A 홈쇼핑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20만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여자들이 지갑을 여는 곳에서 투자 포인트를 발견하려는 최씨의 투자전략은 증시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증시 전문가들은 앞계히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아우른 유통주 중에서 홈쇼핑주를 가장 밝게 전망했다. 경기침체로 가계의 구매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화점·대형마트급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하는 홈쇼핑이 불황형 쇼핑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홈쇼핑 업체들의 주가는 올 들어 선방하고 있다. 이날 현대홈쇼핑 주가(종가 기준)는 13만9500원으로 올 초 대비 13.38% 상승했다. 같은 기간 GS홈쇼핑은 26.03%, CJ오쇼핑은 14.29% 상승했다.

홈쇼핑 업종의 성장은 여성 소비자들의 씀씀이 동향과 궤를 함께 한다. 김경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홈쇼핑 업종은 사실상 여성이 주 고객이므로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력 없이는 시장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주부 등을 공략하면서 유통 업종에서 할인점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케이블 방송에 홈쇼핑 프로그램이 처음 송출되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30~40대 주부가 주 고객이었다"며 "하지만 성장 정체를 겪던 홈쇼핑 업체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패션잡화와 화장품, 명품과 건강용품 등으로 손을 넓히면서 20~50대 여성들까지 고객층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홈쇼핑뿐만 아니라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도 여성 소비자의 구매력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초유의 강세를 보였다. 중저가 화장품 납품업체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이 지난 하반기 신고가를 갈아치운 후 순항 중이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불황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다는 볼멘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활 저변 변화를 잘 살펴보면 유용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며 "여성들이 지갑을 여는 곳에 주목하는 것도 매우 적절한 투자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벌써 3000만명…올 영화 관객 2억명 시대 '커밍순'

힘찬 2억 관객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지난해 1억 관객을 동원했던 한국 영화의 점유율과 관객 수가 갈수록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4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따르면 2월 한국 영화를 본 관객 수는 1809만6430명으로 82.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06년 10월(85.3%) 이후 최고치로 국내 영화산업이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7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성장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도약이다.

정점을 찍었던 2006년 10월 이후 한국 영화의 월별 점유율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70%대로 진입한 적이 없다. 2011년 가을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60~70%대를 유지 중이다.

1월까지 포함한 한국 영화 관객 수는 모두 3006만66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815만4567명)보다 무려 65.7% 늘었다. 영진위는 "각각 1000만 700만 관객을 불러모은 '7번방의 선물'과 '베를린'의 쌍끌이 흥행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와 김용화 감독의 '미스터 고' 등 올여름 개봉될 화제작들이 지금의 추세를 이어받는다면 2억 관객 시대의 맞이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10년 전 '실미도'로 1000만 관객 시대의 도래를 처음 알렸던 강우석 감독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영화관 나들이가 일상적인 여가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고 무엇보다 한국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신뢰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1억 관객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성준기자 when@

24시간 나를 지켜보는 '회사의 눈과 귀'

공짜로 스마트폰 주더니 "위치추적 동의하라" 강요 협조 안하면 퇴사위협도

사내에 CCTV 설치한 뒤 외부서 줌·회전활용 감시 직원 대화내용까지 녹음

"회사가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하더니 위치추적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인권침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영업직으로 일하는 한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이다.

인권위원회는 최근 상업위를 한 여 각종 IT기기의 발달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 노동 감시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근이 잦은 근로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위치 파악을 통해 근태를 감시당하고 있다며 낸 상담·진정 건수는 663건에 이른다.

◆ 인권위 전면 실태조사 착수

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스마트기기에 의한 노동 감시 관련 위원회 진행 및 상담 사례 통계 분석'을 보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영상정보 감시가 484건(68.0%)으로 가장 많았고, GPS 등 위치정보 감시 98건(13.8%), 지문 등 바이오정보 감시 77건(10.8%), 노조활동 감시 관련 상담 건수는 57건(8.0%)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근로자의 모습을 업무상 감시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드러내놓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대기업 계열의 마트에 종사하는 A씨는 "사측이 정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통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통화 내역이나 가족 신상정보까지 요구하고, 불응하면 퇴사시키거나 고발 조치하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또 CCTV를 설치해놓은 뒤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줌·회전' 등의 기능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모습을 감시하거나 외근 때 위치추적 기능을 통해 동선을 파악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음성이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말소리를 불법으로 엿듣기까지 했다.

/채윤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유치원비 함부로 못올린다

학부모와 반드시 논의해야

앞으로 유치원비를 올리려면 학부모와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운영위는 유치원의 규칙과 예·결산은 물론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 후 과정 운영, 보건·안전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위는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다만 상급 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운영위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초·중·고교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가 구성돼 있지만 유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학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인상률이 유독 높은 유치원은 회계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채윤호기자

신입생의 포부 4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2013학년도 상상드림 입학식' 에서 한 신입생이 자신의 소망을 적은 카드를 삼상나무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도심 난동' 주한미군 2명 경찰 출석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중 한 명인 C(24) 하사가 4일 웃옷으로 얼굴을 가린채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또 다른 혐의자인 여군 W(22)씨는 이날 오후 출석했고 D 일병은 치료할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은 "C 하사가 (비비탄) 총을 쏜 사실, '검문 응은 후 도주', 경찰관에 위해를 가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규가입 보험료 다음달 5~10% 또 인상

보험사들이 또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린다. 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자산 운용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업황 변화를 보험료 인상으로 타개하려는 손쉬운 경영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또 보험료 인상은 '절판 마케팅'에 악용될 우려도 크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달부터 표준이율 이 0.25%포인트 내린 3.50%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하향 조정이다.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떨어지면 5%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표준이율 조정에 맞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통상 회계연도가 시작할 때(4월) 보험료를 많이 조정한다"면서 "표준이율이 내리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손보사 관계자도 "질병 보장 관련 상품의 보험료가 5~10%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이율 하락으로 보험료가 줄줄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김지성기자 szyhana@

'직원 성폭행' 헤어디자이너 박준 구속영장 신청

유명 헤어디자이너이자 미용실 가맹점 대표인 박준(62)씨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의 미용실 매장에서 일하던 여직원 A씨는 지난해부터 미용실에서 박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외에 다른 직원 3명도 박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회식 모임에서 박씨가 강제로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한 것이지 강압적으로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지원기자 pjw@

학교는 너무 즐거워요~ 4일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문용린 교육감이 1학년 신입생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학생이 하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10명중 7명 '전공 따로 직업 따로'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10명 중 7명은 전공을 못 살린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2010~2011년 기준 청년층(15~29세)의 전공 불일치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 각각 78.1%와 60.7%에 달했다.

대학 시절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첫 일자리를 잡은 청년 취업자 비율은 2001년 이전에는 평균 72.8%였지만 10년 사이 77.1%로 4.3%포인트 증가했다.

구직난이 심해지자 처우를 낮춘 하향 취업도 많아졌다.

첫 직장이 정규직인 경우는 2001년 이전 79.0%에서 2010~2011년 61.7%로 17.3%포인트나 급감했고 임시직은 같은 기간 18.5%에서 29.7%로 11.2%포인트나 상승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연구위원은 "점수 대신 적성을 살려 진학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과 전공 불일치란 사회적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유희기자 song@

폐업대행 알바 씁쓸호황

물품 대여점·로또 판매점·무한리필 음식점 등 불황형 업종만 일손 부족

물품 대여점, 로또 판매점, 폐업 대행업체, 무한 리필 음식점…

소위 불황형 업종이 호황을 누리면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가 덩달아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취업포털 알바천국은 지난해 하반기 등록된 홈쇼핑 업체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1만2718건으로 2011년 하반기보다 80.6%나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알뜰 소비자가 점차 많아지면서 부진을 겪는 백화점과 달리 홈쇼핑 업체는 전화 상담, 배송, 포장 업무 등을 도울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황일수록 불티나게 팔리는 로또 관련 알바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로또 용지 생산 포장업체 등에서 상여금 300% 등의 조건을 내걸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이다.

저가형 도시락 업체와 일정한 금액을 내면 치킨과 조개구이 등을 무한정으로 다시 채워주는 음식점 업체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도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저가형 도시락 업체의 경우 현재 알바천국에 올라온 구인 공고만 해도 1200여 건이다.

불황 탓에 개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 폐업을 대행해주거나 폐업한 가게의 자재를 새로 창업하는 곳에 되파는 업체와 주인이 바뀐 가게의 인테리어나 간판을 리모델링해 주는 업체도 일손을 구하고 있다.

파티 소품, 의상, 한복, 정장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경우 구입하기보다 빌리려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제품을 내어주고 관리하는 일을 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여 전문점도 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남산도서관 오늘 재개관 개·보수 공사로 5개월간 휴관했던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산도서관이 5일 다시 문을 여는 가운데 4일 남산도서관 쉼 공간에 설치된 '도토리 문고'에서 관계자들이 책 정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 月2만원어치도 안산다

가구당 책 구입에 쓰는 돈이 월평균 2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10년 만에 처음이다. 출판 시장은 부도 쓰나미에 들렸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서적 구입 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1만9026원으로 전년(2570원)보다 7.5% 줄었다. 가계동향조사 대상을 전국 가구로 확대한 2003년 이래 2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연간 고점인 2003년(2만6346원)과 비교하면 28% 가량 감소했다. 작년 소득과 소비지출이 2003년에 견줘 각각 55%, 45%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경기침체 속에 책을 읽지 않는 한국인의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도서 구입 비용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출판 시장은 부도 쓰나미를 걱정하고 있다. 주요 서점과 도매상이 경영난에 시달리던 끝에 줄줄이 문을 닫았고 대형 서점도 매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온라인 서점 5위 규모인 대교 리브로가 지난해 말 사업을 종료했고, 중소 서점과 지역 '토박이' 책방도 잇따라 간판을 내렸다.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에 따르면 대구 물러스북, 프라임 문고 강변점 선도림점, 일산 대영문고, 광주 충장서림, 지에스북 영등포점 안현공항점 등이 폐점했다. /김지선기자 sjy@…

성인 14% 한달에 닷새는 "일 못할만큼 우울"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14명이 한 달 중 평균 5일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의 우울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손지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성인 1029명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질병 단계인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14.1%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는 각각 2.2%, 0.7%였다. 특히 우울장애나 우울증상을 겪는 성인 모두 직장이나 학교에 결근하거나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기능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우울증상이 상당한 성인의 경우 한 달에 5.2일 정도 업무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울장애가 없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한 달간 기능적 손실률은 17.2%에 달했다.

우울장애가 있는 성인의 경우 한 달 동안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평균 7.4일이나 돼 기능적 손실률이 24.7%를 기록했다.

손지훈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상당한 수준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가벼운 우울증상도 일상생활에서 생산력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가족과 지역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민지기자 mjs@…

시원한 목욕 서울 송파구청이 새봄을 맞아 4일 올림픽로 평화의광장 곰돈관에서 올림픽 상징 조형물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송파구청 제공

꽃샘추위 당분간 주춤 하순께 다시 찾아올듯

당분간 꽃샘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 하순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월 하순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해 기온 변화가 크고, 평균기온이 평년(5~10도)보다 낮을 것"이라고 4일 예보했다.

또 남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평년(14~15mm)보다 많이 내리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이달 중순까지는 지난 3~4일부터 찾아온 추위가 풀리가고 포근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중순까지는 기온이 평년(4~9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10~41mm)과 비슷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주는 목요일인 7일 오전 한때 서울·경기지방에 비가 오겠고, 8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16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동호기자 …

개구리 잠깨는 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을 하루 앞둔 4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계곡에서 어린이들이 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구소련 독재자 스탈린 사망

1953년 3월 5일 구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뇌출혈로 사망했다. 구두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직업혁명가로 활동하면서 거듭된 체포와 유형에서 살아나 레닌, 트로츠키와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켰다. '강철사나이'란 뜻의 이름대로 스탈린은 레닌 사망 후 라이벌인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30년 동안 대숙청을 감행해 약 20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는 철권 독재로 소련을 초강국으로 만들었으나 사후 독재자로 격하됐고 스탈린 체제는 손쉽게 무너져 버렸다.

물가상승률 넉달째 1%대라는데…배추 182%·당근 178% 폭등

소비자물가는 넉 달째 2% 미만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식탁물가는 7.4%나 올랐다.

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월 대비 0.3% 올라 4개월 연속 2% 미만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식탁에 많이 오르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사이 7.4% 상승했다. 신선채소는 25.1%나 급등했으며 특히 배추(182.3%)와 당근(173.8%)은 두 배가량 올랐다.

아울러 시내버스료(6.0%), 전철료(12.5%), 입원진료비(2.0%) 등도 인상돼 서민 경제가 빡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을 압박하는 식탁물가 안정을 위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안철수 입당파 vs 신당파 대선 전으로 돌아간 민주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정계 복귀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거리고 있다.

안 전 교수는 4월과 10월 재보선에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3개월여에 걸쳐 신당 창당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4월 재보선에서 안 전 교수가 서울 노원병에 직접 출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 영도, 충남 청양·부여에도 안 전 교수 측근을 후보로 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캠프 본부장 출신의 김성식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본인은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안 표류로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야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새누리당은 공식반응을 자제하며 안 전 교수의 출마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읽힌다.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안 전 교수 출마와 거리를 둠으로써 휘말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야권연대 대상이었던 민주통합당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원병 지역 후보 선출을 두고 "안 전 교수를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야권 대표인 민주당과 상의 없이 출마한 것은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등 5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안 전 교수 입당을 환영한다"는 응답이 65.7%로 나타났다. "안철수 신당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62%에 달했다.

/김유리기자

김무성 재보선 후보등록

김무성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부산 영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4·24 재보선 출마의 첫 단추를 꿰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제2의 정치 인생을 이곳 영도에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당의 공천권은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곳 영도에서도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선에 임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김병관 청문회 8일 개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민주통합당 안규백 간사는 4일 접촉을 통해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국회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늦게라도 개최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당 일각에서조차 자진 사퇴론이 일고 있어 치열한 검증 공세가 예상된다.

/김유리기자

구청소식

용산구 무료 수화교실 운영

서울 용산구는 이달 5일부터 5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무료 수화교실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태원동 수화통역센터에서 올해 연말까지 기초반 2개 반과 중급반 등 총 3개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용산구민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며 초급 단어부터 생활 회화, 수화 노래 등을 배울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199-7123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토론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제의 파급 효과가 크다. 지난달 27일 성북구가 개최한 제4회 인권도시포럼에는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구의 안암동 복합청사를 예로 들며 "국내에서 지자체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복합청사 건립에 인권영향을 평가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인권영향평가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 남궁호
사장·편집인 | 김종혁
편집국장 | 조민호
광고국장 직대 | 김광음
서울광고문의 | 02)721-5851~3
부산광고문의 | 051)650-2100
독자센터 | 02)721-9862
2002년 5월 21일 창간 2002.5.6 등록번호 서울가 00117

총체적 난국' 난감한 대통령 · 무능한 집권여당 · 무책임한 제1야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은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얼굴을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식물정부' 눈 앞인데 '정치'는 대체 어디에

박 대통령 "미래부 물러설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안 대치 계속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일주일째 개점 휴업 중인 가운데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 늑장 처리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기능 이관 문제에 발목 잡힌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 "야당이 우려하는 사안을 받아들여 많은 부분 원안이 수정됐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은 것으로 그럴 거면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완강한 고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 이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 회기가 내일(5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며 "오늘이라도 국회와 청와대 간 가능한 대화 채널을 모두 풀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병성호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은 "야야가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거부감을 보였다.

여야의 정치력 실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정치력이 실종됐다"며 "야당은 비대위원장이 힘을 못 갖고 여당도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해서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박 대통령 담화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문제가 더욱 꼬이는 것 같다"며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 유리한 상황을 여야가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press1108@metroseoul.co.kr

'코리안드림' 접은 '아메리칸드림'

김종훈 미래 장관 후보자 "정치판 보며 꿈 산산조각" 내정 15일만에 자진 사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신설) 장관 후보자가 내정 1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헌신하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조국을 지켜보기 어려웠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날인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자 출신으로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내정하기 위해 공을 들인 인물로 꼽힌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언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이중국적, CIA 커넥션, 부인 소유 청담동 건물의 유흥주점 영업 의원 위기 직후 후보자와 일가 친척의 강남 등 부동산 투기 정황 등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미국 시민권 포기를 위한 거액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병문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여야 대치 국면을 본인의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는 듯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리기자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Russia

Представления с веками стали

metro Mexico

Cada dos horas un... quinceañera es m...

metro HongKong

「公海賭王」涉...

멕시코 '10세 미혼모' 매년 318명

멕시코에서 청소년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멕시코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19%인 30만 명가량이 15~20세 소녀에게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1년 멕시코의 10~14세 청소년 출산율은 1971년에 비해 0.3% 감소한 1만15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318명은 10세에 불과하다. 청소년 출산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한다. 시민단체 '유아권리네트워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청소년 열 명 중 아홉 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뇌물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중국

중국 최고의 도박왕에게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쇠고랑을 찼다. 하지만 이들에게 거액을 건네준 '도박왕'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최근 중국 잡지 차이징은 '공해(公海)도박왕'으로 불리는 렌쥐자오가 여러 차례 상급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전달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렌쥐자오는 크루즈선인 '...'을 호텔 이동해 공해상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했다. 공해상이라 단속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도박장의 고객 명단에는 고위 관료들이 많았다.

천국엔 햄버거가 '주렁주렁'

모스크바 어린이들 천진난만 답변 눈길… 어른들은 "천국 같은 건 없다" 대조적

최근 메트로 모스크바는 17세기 예수회 수도사인 아타나시우스 키르허가 쓴 '천국의 지도'를 입수했다.

'천국의 지도'는 키르허가 1675년에 쓴 저서 '노아의 방주'에 실려 있다. '노아의 방주'는 소나 사슴, 말 같은 평범한 동물뿐 아니라 전설의 동물인 그리핀이나 일각돌고래 등을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러시아에도 쓰여진 이 지도를 해독한 러시아인문대 역사고고학부의 유리 슈스토바 교수는 "키르허는 성경을 바탕으로 오바디아서(구약성서의 12가지 소예언서 중 한 책)에 묘사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려고 했다"며 "특히 그와 책은 노아의 대홍수 전에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슈스토바 교수는 "성경의 구절을 바탕으로 키르허가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 세계지도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며 "키르허는 이 지도를 '천국의 묘사'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지상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홍수 전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에는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등이 표시돼 있으며 아벨과 카인이 살았던 곳, 바벨탑의 위치 및 노아의 방주를 만든 곳 등이 나온다. 슈스토바 교수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노아의 방주가 닿는 곳이 터키의 아라라트산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메트로 모스크바는 현대인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천국 지도'도 만들었다. 조사에서 일부 시민은 천국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천국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시민도 있었다.

한 시민은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은 "삶이 고되다. 천국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이들은 "천국은 항상 예쁜 꽃이 가득한 따뜻한 곳" "햄버거와 놀이공원이 가득한 곳" "말 잘 듣는 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 등 천진난만한 답변을 내놨다.

/루슬라나 카르포바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metro France

신간 '내일' 펴낸 뮈소 인터뷰

열번째 소설 10개월 걸려

'구해줘' '당신 없는 나는' 등 내는 족족 화제를 몰고 오는 프랑스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뮈소. 이번엔 대학교수와 소믈리에의 엇갈린 만남을 그린 신간 '내일'로 독자들을 유혹한다. 특유의 감각적인 문체로 젊은층의 마음을 뒤흔드는 작가 뮈소를 1일 메트로 파리가 만났다.

◆ '내일'은 어떤 작품인가

'내일'은 나의 10번째 소설이다. 이번에도 내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주제들을 만날 수 있다. 시간 차, 평범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명쾌하지 않은 일… 하지만 커플 분석을 통한 새로운 내용도 가미됐다.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커플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그 안에 비밀이 숨어있다.

◆교수와 소믈리에의 만남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

몇 년 전부터 나는 와인 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에 대해 생각해왔다. 파리 5성급 호텔에서 일하는 소믈리에인 에스텔 두제트를 만나면서 차츰 소설 속 소믈리에 캐릭터인 엠마를 상상하게 됐다.

◆ 작업하는 스타일은

-TV 시리즈 시청자의 입장에서 내 작품을 대한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하게 만들려고 애쓴다.

◆ 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

보통 10개월 걸린다. 10개월을 내 캐릭터들과 함께 산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캐릭터에 지나치게 빠진다. 작품을 끝내고 나면 산후우울증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휴식시간을 길게 갖지 않고 다음 작품으로 뛰어드는 지도 모르겠다.

/제롬 베르틀랑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여름방학 2주 줄이자" 비난 쇄도
- 석유 빼돌리다 인근 강 40t 유출
- 'PC 폭탄세일' 행사장 전쟁 난듯

Nikkei (일본)
11652.29(+45.91)
Hang Seng (홍콩)
22537.81(-342.41)
Shanghai (중국)
2273.40(-86.11)
Dow Jones (미국)
14089.66(+35.17)

EXCHANGE RATE	매매기준율 적용
달러	1093.20
엔(100)	1169.13
유로	1422.15
위안	175.52

이마트 1만명 정규직 전환

이마트가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담당하던 하도급 직원 1만여 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정규직화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마트가 4일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도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법원이 한국지엠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파견 근로자로 보고 GM대우와 협력업체 대표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노조 직원 사찰" 의혹 등으로 고용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이마트가 스타트를 끊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훈기자 zen@

스카프 하나로 봄패션 완성 경칩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중구 본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봄을 연출할 수 있는 호피, 플라워 패턴 등 40여 종의 스카프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30%가량 저렴한 1만5000원부터 3만5000원이다.

/롯데마트 제공

NH농협 "올해 1조600억 흑자 목표"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출범 1주년 행사서 '자신'

NH농협금융지주가 올해 1조600억원의 흑자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4일 영등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농협금융지주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이다.

이날 신 회장은 "내부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영업수지 1조600억원 흑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금융지주 출범에 따른 조기비용으로 대손충당금 적충, 농협 브랜드 사용료 부담 등 예상하지 못했던 70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갔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도) 사실상 1조원 정도 흑자를 낸 셈"이라고 부연했다.

신 회장은 이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비상경영체제를 통한 위기관리 ▲경영혁신을 통한 체질개선 ▲건전성 강화를 위한 리스크 관리 ▲금융자회사는 물론 농협중앙회 유통과의 시너지 강화 ▲사회적 책임 경영 등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체질개선과 관련해 "구조조정은 아니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쪽으로 인사 시스템 개혁한다는 얘기"라고 밝히고 지점통폐합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해야지"라고 말했다.

/정지섭기자 lazyhand@

'정치 롤러코스터' 탄 증시

'사퇴' 김종훈주 300억 증발… '보궐' 안철수주 줄줄이 상한가

정치 변수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 발표로 관련 테마주는 일제히 곤두박질친 데 반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월 재보선 출마 소식에 관련 테마주는 나란히 급등했다.

4일 키스톤글로벌 등 '김종훈 테마주'로 꼽힌 4개 종목은 개장과 함께 시가총액 300억원을 날려보냈다.

대표이사가 김 내정자와 매제지간인 키스톤글로벌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한 2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직전 거래일에 1024억원이던 시가총액은 87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김 내정자가 몸담았던 통신장비업체 알카텔-루슨트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거나 국내 총판을 전담하는 등의 인연이 있는 종목들도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산정보통신과 코닉글로리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시총이 각각 65억원, 48억원 줄었다.

대표이사가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출신인 모다정보통신은 12.05% 하락한 6570원으로 45억원의 시총이 사라졌다.

장 마감 때까지 이들 테마주에서 빠진 시총은 총 312억원 규모다.

반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는 31개 종목은 전 거래일보다 평균 9.15%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안철수 테마주의 대표격인 안랩은 14.94% 오른 7만3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우성사료·솔고바이오·다믈멀티미디어·한국정보공학·매커산업·링네트 등 1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프리엠스·주은기술·노루페인트·광명테크 등은 10~12%씩 올랐다. 전체 31개 종목 중 절반이 넘는 17개(54.8%)가 10% 이상 급등한 셈이다.

이날 안 전 교수가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70여 일간의 미국 칩거를 끝내고 오는 10일께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강남·용산·여의도 출근족 '꿈같은 이사'

상도엠코타운 선착순 분양

최근 입주를 시작한 상도엠코타운이 강남권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소형아파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엠코타운은 244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도보 3분 거리이며 강남·용산·여의도가 인접해 실입주자들의 문의가 많다.

특히 단지 내 상현초등학교는 서울형 혁신학교에 지정돼 학군 수요가 늘며 전셋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 7·9호선을 이용해 세화여중·고, 명동고, 경기고 등 명문 8학군과 서울대, 노량진 학원가 등을 이용하기 편리해 아이들을 위한 1등급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현재 59㎡는 마감됐으며 84㎡·118㎡ 잔여 세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 중이다. 청약금은 100만원이며 현장 방문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실 호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824-7000

/이국현기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720만 대변 '공룡단체' 뜬다

김경배 회장 "박근혜 정부와 교감… 법정단체 출범 곧 마무리"

"이달 안에 (중기청의) 최종심사에서 통과될 것이다."

4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김경배(55·사진)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법정단체로의 새로운 출범을 자신했다. 그는 "9부 능선은 넘어갔다. 오늘 저녁에 회장단 통합을 결의하고 (어후) 서류만 접수시키면 된다. (회장단 통합은) 구두상으로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출범을 자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 박근혜 정부가 소신을 갖고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와의 교감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이다.

"박 대통령을 지난해 6월인가에 기든호텔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30~40분 정도 만나기로 했는데 두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다. 소상공인들에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들으신 것이다."

공식 출범일을 이달 20일 이후로 보고 있는 김 회장은 "72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탄생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한미용사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00여 개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문별 협회의 연합단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법)'에 근거했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있는 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관세의 3% 한도에서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약 3000억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 회장은 출범 후 연구소 사업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연합회의 최우선 과제를 밝혔다. "소상공인은 모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통계자료나 연구자료가 거의 없다.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 자료가 나와야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어려우니 지원해달라는 방식은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류처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뷰티산업이라든가 손재주가 많은 상공인들을 산업화하면 세계시장에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업을) 대를 이어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300만 개 중소기업 중 제조업 30만 개를 제외한 전부가 소상공인인데 이들이 가업승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개선되면 경제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연합회가 주도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 "스티커도 붙이고 협회 매장서 일본 담배 판매를 중지하는 등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고령자 전용 무심사 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원활한 가입을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한 간편심사상품이다.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상 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대장암·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뇌암·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성기자

박카스 '3세 경영' 시대로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이 '3세' 경영 체제로 돌입했다. 강신호 회장의 4남 강정석(49) 사장이 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동아제약은 4일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약 자회사 동아ST와 일반약 자회사 동아제약이 이사회를 열고 각사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의 존속 법인인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이날 오후 공식 출범했다.

강 사장은 지주회사 대표이사에 취임, 이날부터 회사 전체를 공식적으로 이끈다.

신임 강 대표는 중앙대를 졸업한 후 2005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을 거쳐 2007년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후계자 자리를 꿰찼다. 승계 과정에서 2남 강문석씨는 강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물러났다.

/박상준기자 sam@

학원 수강시 일자리 주는 알선미조형 의심 · 고소득 보장형은 다단계 가능성

주의! 이런게 취업사기

4가지 유형과 대처법

극심한 취업난을 악용하는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순히 허위·과장 광고에서 벗어나 전직 교사·공무원을 동원해 구직자를 속이는 교묘한 수법까지 등장했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의 도움을 받아 최근 유행하는 취업사기 유형과 대처법을 알아본다.

◆배우면서 일하는 출석미조형-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로 자격증 관련 교재비나 학원 수강비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주로 IT 개발 또는 디자인 등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서 2~3개월 단기 학원 수강을 권한다. 어떤은 학원 수강만 하면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다며 비교적 높은 수입을 제시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고소득 보장형-'월 300만원 보장' 이나 '능력에 따라 연 3000만원 가능'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수입을 제시하는 채용 공고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런 구인 광고들은 다단계 판매회사, 기본급이 턱없이 적은 영업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맹신해선 안 된다. 회원 가입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거나 약간의 투자로 목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업클선형-'3000만원만 내면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인사팀 간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짓말로 금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최근에는 취업이 어려운 할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취업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직 공무원·교사 등을 동원해 구직자 부모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요구형-인감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통장,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조건으로 내건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사기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혹시 감언이설에 속아 휴대전화나 통장을 양도했다면 즉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하거나 해당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센터 등에 도움 청해야-일단 취업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부 고용센터나 시·군·구청 노동 관련 부서 등에 신고하면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국현기자 ka[illegible]@metroseoul.co.kr

CU 론칭… 편의점 전문기업 1위

이번주 채용기업

BGF리테일 BGF리테일

BGF리테일은 도서지역을 포함한 260여 개 시·군·구 및 북한지역(금강산·개성공단)에 편의점 점포를 출점해 업계 최초로 전정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오랜 편의점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유 편의점 브랜드 CU(씨유)를 론칭함으로써 명실상부 대한민국 1등 편의점 기업으로서 그 위치를 공건히 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새로운 도전'을 함께할 '열정과 도전', '정직', '학습', '팀워크'를 갖춘 인재를 찾고 있다.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면접전형을 통해 인턴사원을 채용하며 인턴사원은 5주간의 실습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다. BGF리테일의 정규직 전환률은 평균 90%(최근 3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인턴 실습 기간 동안 실습비와 기타 비용이 지원된다.

원서는 19일까지 채용 홈페이지(recruit.bgfretail.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커리어 제공

주간 채용캘린더

5(화)	*LS엠트론(경력) *현대종합금속
6(수)	*동부화재(신입) *예금보험공사 *삼성에버랜드(경력) *KT
7(목)	*풀무원(신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인턴)
8(금)	*에스원(신입) *동양제철(경력) *대우건설(경력) *한국전력공사
9(토)	*두산엔진(경력)
10(일)	*신세계아이앤씨(경력) *[illegible]
11(월)	*IBK기업은행(신입) *삼성전자(경력)

* 서류마감일 기준
*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상반기 공채
2위 신입 초봉
3위 영어 말하기 시험
4위 제약업계 채용
5위 토익 절력 접수

*2월 26~3월 4일 인기 검색 순위

물가상승 그만! 착한 뉴스 둘

'달콤한' 설탕값

CJ제일제당 출고가 인하

CJ제일제당이 5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하얀설탕 1kg은 1363원에서 1308원으로, 15kg은 1만7656원에서 1만6597원으로 각각 4%, 6% 내린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9월에도 설탕 출고가를 평균 5% 인하한 바 있다. 이로써 하얀설탕 15kg의 경우 최근 6개월 만에 1만8605원에서 1만6597원으로 10.8% 값이 떨어졌다.

회사 측은 "최근 국제 원당 시세가 보합세를 보이는 데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 담뱃값도 '슬림' 14일 2300원으로 내려

초슬림 담배 '보고'의 가격이 200원 저렴해진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는 오는 14일부터 보고 1mg, 보고 블루 1mg, 보고 0.3mg의 가격을 2500원에서 2300원으로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BAT 코리아는 지난해 4월에도 이 제품 가격을 27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린 바 있다.

BAT 코리아 측은 "담배 시장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2300원 이하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효순기자

해운대의 '새 보석' 파도처럼 웅장

부산 새 랜드마크로 떠오른 '파크 하얏트 부산' 가보니

부산의 핫플레이스인 해운대에 특1급 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이 문을 열었다.

하얏트 호텔 패밀리 중 최상위 브랜드인 파크 하얏트 부산은 전 세계에서 서른한 번째, 한국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그랜드 오픈 행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파크 하얏트 부산을 찾았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이 호텔은 웅장한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건물의 꼭대기는 부산 앞바다의 역동적인 파도를 형상화했다. 특히 지상 33층, 지하 6층 규모의 호텔

외장 전체에 통유리를 사용해 실내 어디서든 바다가 품에 안긴다.

객실 통유리창 너머로는 광안대교와 해운대 앞바다가 펼쳐지는데 특히 야경이 근사하다. 깜깜한 밤이면 광안대교를 밝히는 조명과 자동차 불빛들이 반짝인다.

호텔의 객실은 스위트룸 69개를 포함해 총 269개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콘셉트로 자연석과 원목 같은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주로 사용했다. 또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하면서도 한지 조명 등 한국적인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호텔 32층에 위치한 시그니처 레스토랑 '다이닝 룸'은 익시 가봇장, 백살, 자물쇠 등 한국 전통 가옥의 요소들로 실내를 꾸몄다. 이기선 생선회, 육산물 요리, 스테이크 등을 맛볼 수 있다. 캐주얼 레스토랑 '리빙룸'은 가벼운 한식과 양식을 제공하고, 저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가 라이브 연주도 들려준다.

부대시설도 알차다. 3~5층에는 수영장·헬스클럽·스파 등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바다를 감상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파크 하얏트 부산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로비'다. 대부분의 호텔 로비가 1층에 있는 데 반해 서울처럼 파크 하얏트 부산의 로비 또한 30층에 있다. 일반 손님들로 북적이는 1층에 비해 한산하고 여유로웠다.

파크 하얏트 부산 마크 본 아놀츠 지배인은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로 새로운 럭셔리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부산=이지웅기자 jjw@metroseoul.co.kr

일본여행 '3색 감성루트' 따라가볼까

日관광청 '일본 문 답' 행사 감상평 남기면 항공권 경품

일본관광청이 '일본 문 답, 당신은 어떤 일본 여행을 가고 싶나요?' 캠페인을 통해 3명의 셀러브리티 여행기를 이달 말까지 공개한다.

여행기의 주인공은 시인 여병률과 배우 조민기, 사진작가 조선희.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약해온 세 사람은 풍부한 감성과 독특한 시각으로 홋카이도, 도쿄, 규슈 등 일본의 매력적인 도시를 소개한다.

무엇보다 같은 여행지 안에서도 극과 극의 다른 여행 루트를 제안하고, '당신은 어떤 여행을 선택하겠느냐'고 묻는다. 세 사람이 사진과 글로 선하는 여행기는 사람과 마음 이야기가 더해져 생생한 감동을 선사한다고 관광청 측은 설명했다.

조민기와 조선희의 여행기는 각각 아시아나항공(www.flyasiana.com)과 제주항공(www.jejuair.net)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여병률의 여행기는 일본관광청 캠페인 사이트(www.jrou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이들의 여행기를 읽고 여행 루트 선택 투표를 하거나 감상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규슈 왕복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박지원기자

순해진 '드라이피니시d' '1위 맥주' 탈환 노린다

하이트진로가 '드라이피니시d' 맥주 도수를 낮추고 시장점유율 회복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4일 저알코올 주류를 선호하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 드라이피니시d의 도수를 기존 5%에서 4.8%로 낮춘다고 밝혔다. 도수 조정은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2011년 국산 맥주 시장점유율 50.3%로 부동의 1위를 지켰던 하이트진로는 이후 오비맥주의 상승세에 밀려 지난해 44.3%까지 내려앉으며 오비맥주(55.7%)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전효순기자 hsjeon@

홈쇼핑에 뜬 '블라디보스토크'

코레일관광, 업계 첫 론칭

코레일관광개발이 여행업계 최초로 '동방의 진주'라 불리는 블라디보스토크 상품을 홈쇼핑에 론칭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1·2일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상품을 홈앤쇼핑에서 판매했다고 3일 밝혔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탑승하는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4일 상품'은 영화 '태풍'의 촬영지로 유명한 '혁명광장'을 비롯해 100여 년 역사를 지닌 '굼'백화점', 젊음의 거리 '아르바트 거리', 하바롭스크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향토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다. 3월 매주 수·금·일요일에 출발하며 가격은 109만원부터다.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 3일 상품' 역시 2박3일간 알차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3월부터 매일 출발하며 가격은 74만9000원부터다.

모든 상품에는 왕복항공료와 호텔 2인 1실, 현지 차량비, 식비, 관광지 입장료, 1억원 여행자보험, 현지 가이드, 러시아 비자 발급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박지원기자

'한국의 속살' 찾아 그 매력 알려요

관광공사 대학생 기자단 '트래블리더 5기' 모집중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의 숨은 매력을 홍보할 대학생 관광기자단 '트래블리더 5기'를 모집한다.

트래블리더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2009년부터 운영해온 대학생 관광 전문 기자단으로, 이달 17일까지 한국관광공사 공식 웹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접수를 받는다. 국내 관광에 관심이 있고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학생 또는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5기 기자단에는 총 70명이 선발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여행 기사 작성·UCC 제작 및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트래블리더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함께 매달 국내 주요 여행지 답사 기회가 주어진다. 활동 지원을 위한 기자증과 온라인 명예 행불럼도 제공된다.

우수 콘텐츠는 공식 웹사이트와 블로그(blog.naver.com/korea_diary)에 소개한다. 연말에는 수료증 수여와 함께 우수 활동자를 선발해 시상할 예정이다. /권보람기자

metro entertainment E

"난 예쁘지 않다…그게 장점"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 주인공 맡은

아이유

국민 드라마의 후속에 국민 여배우를 노리는 국민 여동생이 출연한다. 내 달 서영이에 이어 9일부터 방영될 KBS2 새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에서 아이유(20)가 주인공 이순신 역을 맡아 가요계에 이어 안방극장 접수까지 나섰다.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그는 "부담스럽지만 자신은 있다"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박진형기자 tekki427@metroseoul.co.kr

– 본격적으로 연기에 도전하는 소감은?

▶ 연기 경력이 '드림하이'에서 필숙 역을 맡은 것뿐이라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큰 역할인 탓에 해도 될까 걱정됐지만 작가님과 감독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서 출연을 결정했다. 가수와 연기자 활동 둘 다 악바리처럼 열심히 하겠다.

– 아이유라는 예명을 연기할 때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 특별한 의도는 없고 본명 이지은과 아이유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아이유라는 예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쓴 것이다.

– 배역의 매력을 소개한다면

▶ 예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되는 일도 하나 없는 '루저'지만 특유의 넉살로 힘든 세상을 밝게 헤쳐나가는 캐릭터다. 그동안 드라마에선

아이유(왼쪽)와 극중 상대역 조정석이 제작발표회 무대에 나란히 섰다. /뉴시스

'루저' 이순신 역 분장 안해도 딱! 조정석과 나이차 크게 못 느껴 가수·연기 악바리처럼 해낼게요

예쁘지 않은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사랑을 받는 설정이 많았다. 실제로는 예뻤던 여배우들과 달리 난 진짜 예쁘지 않아서 자신 있다. 분장하지 않아도 순신이처럼 초라하고 한심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하하.

–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나온다고 들었다

▶ 극 초반 순신이는 촌스럽고 못난이에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느낌이라 화장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집에서 대충 하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첫 촬영에서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더니 감독님이 '화장 좀 해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하고 간다.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하게 하고 있다.

– 실제 나이가 띠동갑 차이 나는 조정석과의 연기 호흡은 어떤가?

▶ 극 초반엔 사이가 좋지 않은 터라 지금은 이용당하는 장면 위주로 찍고 있다. 리액션을 잘해줘 연기할 때 편하고 감사한 마음이 크다. 키스신까진 멀게 느껴지는데 정석 오빠가 기대감을 내비쳤다니 나도 기대감이 크다. 나이 차이는 그리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 하하하.

– 조정석의 첫인상은 어땠나

▶ 정석 오빠를 처음 봤을 때 피부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다. 광대가 반짝반짝 빛나더라. 게다가 성격도 자상해서 촬영장에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면 녹아버릴 것 같다.

아이유가 4일 열린 KBS2 '최고다 이순신' 제작발표회에서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윤상(라운드테이블)

– 절친 유인나와 어떻게 같이 출연하게 됐나?

▶ 유인나 언니와는 이번 드라마를 제안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상의했을 정도로 친하다. 출연을 결정할 때도 큰 조언과 격려를 해줬다. 극에서도 언니로 캐스팅돼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촬영하고 있다.

–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

▶ 엄마와 할머니 두 분 다 이번 드라마의 전작 '넝쿨째 굴러온 당신'과 '내 딸 서영이'의 애청자였다. 엄마는 '이보영의 얼굴을 보다가 어떻게 네 얼굴을 보느냐'고 하셨다. 그래서 엄마께 '순신이도 점점 예뻐진다'고 안심시켜 드렸다. 많이 응원해준다.

디자인/원지영

star bag

바느질 삼매경 빠진 '장옥정'

김태희가 바느질 연습이 한창이다.

다음달 초부터 방송될 SBS 새 월화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조선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 출신인 장옥정(장희빈) 역을 맡은 김태희가 단한복 박선이 원장의 지도를 받고 있다. 서울대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재원답게 남다른 학습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마이엔젤' 음원차트 상위권

윤민수와 은후 부자가 주말 안방에 이어 음원차트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다. MBC '일밤-아빠 어디가'에 출연하고 있는 이들이 3일 방송에서 부른 포맨의 '마이 엔젤'이 방송 직후 멜론 등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에 등장했다. 이 곡은 윤민수가 프로듀서를 맡았던 남성 3인조 보컬그룹 포맨이 2010년 1월 발표한 스페셜 앨범 '더 서드 제너레이션'에 수록된 곡이다.

드라마 '네일샵 파리스' 주연

카라의 박규리가 국내 드라마에 데뷔한다.

그는 다음달 초부터 케이블 MBC 드라마넷과 MBC 퀸에서 방송될 국내 최초 네일아트 드라마 '네일샵 파리스'의 주인공 홍여주 역을 맡았다. 홍여주는 인터넷 소설 작가지만 꽃미남 네일숍인 파리스에 남장을 하고 취업하게 되는 독특한 인물이다. 박규리는 2011년 방송한 일본 TV도쿄 드라마 '우라카라'와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에서 연기 경험을 쌓았다.

첫 솔로 트랙리스트 공개

이하이가 정규 앨범을 들고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2013년 1호 가수로 출격한다.

YG는 4일 공식 블로그에 첫 솔로 앨범인 '퍼스트 러브'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7일 5곡을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 후 21일 다른 5곡을 추가한 앨범을 발표한다. 또 '잇츠 오버'와 '로즈' 등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운다.

가수들 줄잇는 미국 무대

김장훈·에프엑스 등 공연

싸이의 신곡 발표를 앞두고 한국 가수들이 줄줄이 미국 시장을 두드리며 K-팝 열기를 고조시킨다.

싸이의 절친 김장훈은 23일 미국의 대규모 기부 행사 중 하나인 '펑크리본 도네이션 마라톤 파티'에서 공연한다. 세계 최대 유방암 재단인 '수전 G 코멘' 주최로 열리는 행사로 파티 참가 인원이 10만 명에 달한다. 이번 공연에 이어 4월 11일 LA 그리크 시어터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을 도는 '미라클 투어'도 진행한다.

SG워너비 김진호는 7~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뮤직배터스 아시아'에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됐다. 각국의 미디어 관계자들 앞에서 K-팝 발라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6일에는 실리콘밸리 동영상 업체인 비키 본사에서 유튜브 생중계 팬미팅을 열며 세계 팬들과 만난다.

걸그룹 에프엑스(사진)와 밴드 국카스텐·노브레인·갤럭시 익스프레스는 12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북미 음악 페스티벌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의 'K-팝 쇼케이스' 무대에 오른다.

/유순호기자 suno@

'내 딸 서영이' 유종의 미

KBS2 주말극 '내 딸 서영이'가 46.7%의 시청률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4일 시청률 집계 기관 TNmS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최종회는 전국 기준으로 전회보다 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방영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34회에서 40%의 벽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46회에서 프로그램 자체 최고인 48.5%까지 치솟았다. /최진환기자

낮은 시청률 때문에 폐지하기로 결정된 KBS2의 예능 프로그램 '달빛 프린스'(왼쪽) 와 '남자의 자격'

시청률에 살고 죽는 예능

'달빛 프린스' '남자의 자격' 나란히 폐지 수순

예능계에 피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다.

KBS는 강호동을 앞세운 북토크쇼 '달빛 프린스'(이하 '달프')와 일요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하 '남격')을 나란히 폐지하기로 4일 결정했다.

폐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저조한 시청률 탓이다.

1월 22일 첫 방송된 '달프'는 방영 내내 3~5%의 시청률에 머물렀고, '남격'은 최근 MBC '일밤-아빠 어디가', SBS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 2'에 밀려 한 자릿수 시청률로 고전해왔다.

앞서 MBC도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9년 된 장수 프로그램 '놀러와'를 폐지한 데 이어 후속으로 선보인 '토크클럽 배우들'마저 방영 7회 만에 폐지했다.

이전에도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은 어김없이 조기 종영됐지만, 이번에는 신규와 장수 프로그램까지도 예외 없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예능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면서 지상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특히 종편 예능 프로그램까지 지상파 시청률을 위협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토크클럽 배우들'과 '달프'는 시청률이 각각 2%와 3%대까지 추락해 종편 MBN의 '황금알'과 '엄지의 제왕'에도 밀리는 굴욕을 맛봤다.

한편 '달프' 후속으로는 강호동의 장기인 야외 버라이어티가 논의되고 있으며, 지난달 방영된 파일럿 프로그램 '맘마미아'가 '남격'의 후속으로 물망에 올랐다.

/최진환기자 kak0427@metroseoul.co.kr

담담한 고백 복송 가족사 자전적 얘기 먹먹한 울림

재일동포 양영희 감독 작품 　카메라 들고 찍는 핸드헬드 촬영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what@seoul.co.kr

■ 가족의 나라

재일 한국인을 지칭하는 '자이니치(在日)'. 그중 북한에 뿌리를 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동포 2·3세는 남북과 일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허상뿐인 이념에 짓눌려 평생을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라'란 사람 같은 외침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7일 개봉될 '가족의 나라'는 재일동포 양영희 감독이 자신의 한 많은 가족사를 고스란히 옮겨 지난해 일본 유수의 영화상들을 휩쓴 작품이다. 1970년대 초반 북송된 세 오빠와 헤어져 살고 있는 경험을 담담한 목소리로 읊조린다.

리에(안도 사쿠라)는 20년 전 북한으로 떠나보냈던 오빠(이라타)의 귀향이 반갑기만 하다. 그러나 오빠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감시원(양익준) 탓에 불안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오빠는 뇌종양 판정을 받는다. 가족들은 오빠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지만, 감시원은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다"며 북한으로의 조기 귀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핸드헬드로 미세하게 떨리는 카메라는 객관적인 시점을 잃지 않는다. 연출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실수, 즉 주관의 오류를 피하고자 한 의도로 읽힌다.

앞서 '굿바이 평양'과 '디어 평양' 등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두 편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양 감독의 내공이 빛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덕분에 관객들은 영화가 끝날 때쯤 먹먹해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반면 캐릭터들을 학대하면서까지 눈물을 쥐어짜내는 이느 국내 가족 드라마에 익숙한 몇몇은 지나치게 담백하고 심심한 마무리에 살짝 아쉬워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재일동포인 최양일 감독이 2004년 선보였던 기타노 다케시 주연의 '피와 뼈'와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비슷한 소재를 다루지만 전혀 다른 두 작품을 통해 자이니치의 가슴 아픈 과거와 현재를 반추해보길 권한다. 12세 이상 관람가.

SF로맨스 '더 호스트' 내달 4일 개봉

시얼샤 로넌 주인공 맡아

화제의 SF 로맨스 '더 호스트'가 다음달 4일 국내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해 막 내린 '트와일라잇' 시리즈 원작자 스테파니 메이어의 야심작을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는 외계 생명체에게 몸을 빼앗겨 숙주 신세로 전락한 멜라니가 영혼의 이끌림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들과 손잡는다는 줄거리다.

전작 '어톤먼트' '한나' '러블리 본즈' 등으로 신비로운 느낌의 미모와 연기력을 뽐냈던 열아홉 살 새내기 시얼샤 로넌이 멜라니의 몸에 두 개의 영혼이 깃든 주인공을 열연한다. 제2의 로버트 패티슨과 테일러 로트너로 평가받는 꽃미남 맥스 아이언스와 제이크 아벨이 힘을 보탠다. /조성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하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5 What do you do?

직업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로 합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Are you a student here, Jack?
B No, I'm not. I'm a teacher. You're a teacher too, aren't you?
A Yes, I am. 저쪽에 저 여자분은 누구죠?
B I don't know who she is.

정답 Who is that lady over there?

생생영어팁

▶ Q What do you do? 무슨 일을 하세요?
A I work for Google. 전 구글에 다녀요.

상대방의 직업을 물을 때 What do you do?라고 한다는 걸 배웠는데요, 그럼 '전 회사원입니다'라고 답할 땐 어떻게 말할까요?

생각보다 쉽게 입이 떼어지지 않을 거예요. '전 회사원입니다'라고 할 때는 회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 I work for Google처럼요.

사전에 나온 '회사원'이라는 뜻의 단어 office worker를 써서 I am an office worker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 1000

01 East Ahfray City is run _______ a mayor and six-member council who are elected for four years.
(A) of (B) among
(C) by (D) from

02 _______ about the actual cost of the project have delayed the plans for expanding the arena.
(A) Additions (B) Manners
(C) Materials (D) Concerns

01. 이스트 애프레이 시는 4년 임기로 선출된 시장과 6인의 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해설 행위자(시장과 6인의 의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C) by를 써야 한다.
어휘 run 운영하다, 관리하다 mayor 시장 council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elect 선출하다
정답 (C) by

02.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에 대한 우려로 경기장 확장 계획이 지연됐다.
해설 '비용에 대한 염려, 걱정'이 문맥상 적합하므로 (D) Concerns를 쓴다.
어휘 actual 실제의, 사실상의 delay 지연시키다 expand 확장하다 arena 경기장 addition 추가
정답 (D) Concerns

Jump Up TOEIC Speaking

Part 2. Describe a picture

도입부 말하기

사진 속 장소 말하기

특정 장소를 말할 때는 전치사 at을 사용하고, 내부 공간을 말할 때는 전치사 in을 사용한다. at과 in을 사용하지 않고 'This is a picture of + 장소명'으로 말할 수도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실내인지 야외인지만 언급해도 된다.

▶ 비슷 실내 장소 말하기

This is a picture taken at a restaurant.
This picture must have been taken at a restaurant. 이 사진은 식당에서 찍은 것이 분명합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restaurant.

▶ 빈출 야외 장소 말하기

This is a picture taken in the park. 이 사진은 공원에서 찍은 것입니다.
This picture must have been taken in the park. 이 사진은 공원에서 찍은 것이 분명합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park.

▶ 실내 및 야외 말하기

This is a picture taken indoors.
This is a picture taken outdoors.

투명함의 폭력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새벽에서 벨 소리가 울렸다. 새벽 4시50분. 잘못 들었겠지 싶어 돌아누웠는데 몇 번이고 반복됐다. 누군가가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출입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인터폰을 들었다. 분명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데 얼굴이 보이질 않았다. 인터폰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답이 듣지 못할 어느 한 알두의 말만 돌아왔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요즘의 아파트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를 한다. 보안장치와 거주자 사이에는 CCTV라는 이름의 카메라로 유지된다. 카메라는 택배원, 가스검침원, 인터넷 AS 기사 등 낯선 사람에 대한 거주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선택된 도구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오히려 공포를 주고 있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폭력을 불러온 셈이다. 이를 두고 한병철 교수는 『투명사회』에서 투명함의 폭력을 주장하는 듯하다.

소비자는 투명함의 폭력 때문에 극단적으로 제한된 공간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축에서 보면 창문의 디자인은 외부에서 안을 볼 때 볼 수 없도록 설계되고, 건물의 외관은 예상인의 경우 출입문이 어디인지 판단할 수 없도록 감춰지고 있다. 감정적으로도 다르지 않다. 최근 각광받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작성자가 텍스트나 이미지를 원하는 시간만큼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연히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SNS라는 공간에서조차 폐쇄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청소년 대상의 공간은 그 사용 주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열린 디자인이 주로 채택된다. 학교, 학원은 물론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PC방, 카페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투명함을 투명함이 아닌 폭력의 기획로 삼는 어른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인과 더 많이 격리시킬지를 고민한다.

씁쓸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사회를 피할 수는 없다. 묻고 싶다. 투명함의 폭력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 마련은 누구의 몫인가.

/박상진(트렌드랩 대표·www.tlp.co.kr)

날씨

3/5 火 일출시각 06:58 일몰시각 18: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지역	기온
서울	1/9
청주	-2/11
대전	-3/14
전주	-2/11
광주	-1/10
제주	5/10
강릉	3/14
울릉도	2/11
대구	0/14
포항	2/15
울산	2/16
부산	2/15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고 운동을 한다면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하는 운동은 소화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식사를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운동에너지로 쓰이므로 다이어트 효과가 낮습니다.

전식지수 /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연세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6					9
				8	4		5	2
	2	4						
		3		7				5
	9						1	
5				4		7		
						8	2	
1	8		2	6				
2					5	3	9	

5			1		6			3
	1		5		3		2	
		6				1		
		3	8		9	6		
9								1
		7	4		1	9		
		2				7		
	8		6		2		1	
3			9		5			4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저랑 사주 더 잘 맞는 사람 누구? 8월생 남자 돈 많지만 굴곡의 삶

미팅속이북집사장 여자 85년 10월 28일 생
남 85년 4월 20일 생 / 남 81년 8월 13일 생

Q 안녕하세요. 매일아침 출근길에 메트로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 세 달째에 많은 고민이 있어서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두 사람 중에 저랑 더 맞는 사주가 있을까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금전운도 궁금합니다.

A 4월생 남자는 직장생활을 하는 월급자의 상으로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운명이고 부부 사이는 아기자기할 것입니다. 8월생 남자는 돈을 많이 만져보지만 지나친 정의감으로 인생에 굴곡이 많아 저 팀의 흥어심과 모임이 대단사합니다. 올해 3월 지나 마음의 향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나에게 불편하지 않은기를 보고 선택을 하십시오. 결혼이란 자기의 짝을 찾아 부부의 연을 맺는 것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줘야 하며 큰 흠결은 당사자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겠으나 가정이 원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도문이 안 될 것입니다. 돈에도 여력가 없어 정성을 다하여 모으면 굴곡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동갑내기 남친과 결혼운 있을까 당장은 힘들고 33세 이후에 안연

활력브 여자 83년 11월 25일 양력

Q 전공을 살려 졸업 후 현재까지 잘 근무하고 있으나 비전이 없어 좀더 전문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전공과 같은 글이고요. 올해 가을이나 겨울쯤 시험이 있을 것 같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동갑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만월(滿月)' 보름달의 모습이니 솔직 담백하고 평탄 화지(華麗)하며 이직할수록 도움은 좋아지는 성향이 있게 됩니다. 간여지동(干與支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부부간에 상극적 대립이 심하고 부부궁이 충살(衝殺) 공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33세 이후에 결혼운이 오고 시험은 2013년보다는 2014년이 상승세입니다. 만사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으니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능력이 모두 다르겠으니 어느 분야에서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어 공부를 해서 전문가소리를 들을 정도로 실력을 키워놓으면 어려움 많이 생겨도 주변에서 도움이 따르게 되니 2016년 지나면서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에 음력 혹은 양력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5일 (음 1월 24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0540

쥐 — 48년생 적절한 길은 반전된다. 60년생 은밀한 결혼을 박이 따르는 법~ 72년생 분주한 만큼 지갑은 두둑해진다. 84년생 이기주의 때문에 구설수 오르지 않도록 조심할 것.

소 — 49년생 달콤한 빛 다면이 유쾌한 하루~ 61년생 배우자와 희비가 엇갈린다. 73년생 공짜에 없는 부탁은 금삭할 것. 85년생 연인과 오해가 풀려 다시 뜨거워진다.

호랑이 — 50년생 생각대로 일이 풀려간다. 62년생 손금을 하려면 자신에게 관대할 것. 74년생 일에 귀에 걸리는 희소식 듣는다. 86년생 음란지랍이 억지 부리는 것은 멀리하라.

토끼 — 51년생 돈 내고 좋 못지 않도록 조심~ 63년생 회식는 일은 많고 결론은 없다. 75년생 좋았던 사람의 빛탈에 맥이 빠지는구나. 87년생 적당한 여행은 윤활유가 된다.

용 — 52년생 고육에 울이 한 격이다. 64년생 눈총받던 처지서 졸업하니 즐겁구나. 76년생 거친 파도가 유능한 선원을 만든다. 88년생 스트레스 주던 상사가 떠나 야호~

뱀 — 53년생 대세 따르면 모든 게 편안~ 65년생 적당한 거짓말이 필요한 날이다. 77년생 투자는 당분간 관망만 할 것. 89년생 생각이 너무 많아 일의 진전이 없다.

말 — 42년생 침숙의 무서운 좀 경험한다. 54년생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66년생 강점을 클씌우면 고생하고 욕먹는다. 78년생 다소 불만이 있어도 대세 존중할 것.

양 — 43년생 일에 앞은 계획은 백지화하라. 55년생 순리를 따르면 일의 막힘이 없다. 67년생 상황이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79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원숭이 — 44년생 투자 계획은 미루는 게 좋다. 56년생 어려움은 잠시니 기죽지 마라. 68년생 전통을 존중하면 얻는 게 많다. 80년생 욕심이 나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것.

닭 — 45년생 찾고 있는 사람은 아직 오리무중~ 57년생 물고기가 큰 강을 만난 격이다. 69년생 주변의 변화에 예의 주시할 것. 81년생 생각했던 일은 실행하면 좋다.

개 — 46년생 맘 없이 맡은 재물은 화 부른다. 58년생 주변의 인맥을 잘 활용하라. 70년생 분주한 만큼 얻는 것도 많다. 82년생 구설수 있으니 가볍게 따라 좋을 이라.

돼지 — 47년생 시고수 있으니 화를 삼가라. 59년생 희청한 할날에 복숭아꽃이 활짝 핀 격이다. 71년생 스스로 편안하게 할 것. 83년생 세 좋은 준비가 완벽해야 결과도 완벽하다.